#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 '사활'

## 익산시, 교육청 · 관내 대학 · 기업들과 공동 협력사업 논의

익산시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 감소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시는 교육청과 관내 대학 및 기업들과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교육발전특구의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의 시작은 교육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을 지역균형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계획 중에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재정적 지원까지 특구당 3년간 30억~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등 익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가 차별화된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익산형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며 "정주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해수부 주관 수산자원 산란 · 서식장 조성 공모 선정

## 군산시, 국비 20억 확보… 옥도면 해역에 2028년까지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 조성

옥도면 해역에 오는 2028년까지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이 조성되며 수산자원 증대와 어민의 경제 활성 성장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 수산자원 산란 · 서식장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5년 동안(2024~2028년) 옥도면 해역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산란 · 서식장 조성사업은 자원회복 대상품종의 산란 · 서식장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산자원을 회복 · 증강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수산자원 산란 ·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초 마무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주관하는 2024년 수산자원 산란 · 서식장 조성 공모에 사업계획서 및 사전영향조사서 등 제출,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소가 신청해 6개소가 선정됐으며, 시는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 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옥도면 해역에 총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투입,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 및 먹이장 조성,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갑오징어는 마리당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과거부터 군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품종이었으나 최근에는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옥도면 해역을 중심으로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을 조성해 군산관할 해역에 갑오징어 자원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옥도면 해역에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아간다면, 어족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옥도면 해역의 어족자원은 인근 해역까지 연계 ·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산란 · 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가람의 기록 : 조선어학회 사건' 재조명

익산시가 가람 이병기선생의 눈을 통해 조선어학회 사건을 재조명한다.

시에 따르면 가람문학관은 내년 3월 31일까지 새로운 기획전 '가람의 기록 : 조선어학회 사건'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독립유공자 가람 이병기 선생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국어학적 활동과 조선어학회 사건을 가람 일기의 내용과 함께 구성됐다.

이병기는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강연과 연구를 꾸준히 했던 인물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약 1년간 복역한 독립유공자이다.

약 60년간의 활동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는 가람의 일기에는 당시에 그가 어떤 활동을 언제 했는지와 조선어학회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문학적 업적에 집중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말과 문학을 지키고자 했던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람문학관은 우리 말글과 문화를 지켜내고 시조를 현대적으로 부흥시킨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2017년 여산에 개관했다.

문학관 내부에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삶과 시조, 유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이를 간략히 요약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실, 선생이 작사한 교가들과 다양한 문학책을 감상하고 시조 쓰기, 시조 칠하기 등을 해볼 수 있는 체험실 등이 있어 관람객의 자유로운 문학 체험을 독려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밥차 · 곳간이 취약계층을 위해 민관협력 겨울나기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밥차 · 곳간, 겨울나기 장 열어

## 익산시, 밥차가 운영되지 않는 1월 동절기 가정식 식사재료 선물

익산시 다이로움 밥차 · 곳간이 취약계층을 위해 민관협력 겨울나기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줬던 다이로움 (이동)밥차는 27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운영을 종료하며 겨울 나눔의 장을 열었다.

다이로움 밥차 · 곳간 겨울나눔장터에서는 취약계층 이용자 300명에게 밥차가 운영되지 않는 1월 동절기 동안에 가정에서 든든하게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떡사리, 만두, 사골국, 찹쌀 등을 전달했다.

특히 읍면동장 책임제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100세대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이불, 내의 등 동절기용품 꾸러미를 부식품과 함께 지원했다.

또한 대상자들이 다이로움 나눔 곳간을 부담 없이 찾아오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마켓과 같이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다이로움 나눔 곳간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이로움나눔 곳간은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추진한 나눔의 플랫폼으로 익산시로 기부된 다양한 후원 물품을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나, 취약계층들에게 무료로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생계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곳간은 동절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품목을 고민하고 겨울철 용품과 식자재를 모아 계절 코너를 운영해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용품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겨울나눔장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실을 열어 간단한 혈압 · 혈당 확인으로 겨울철 건강 관리법을 안내하고, 복지 서비스를 상담하는 창구가 운영됐다.

정헌율 시장은 "다이로움 밥차는 모금액으로 운영되는 만큼 후원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며 수혜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부송종합복지관 ·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운영 중인 다이로움 밥차와 나눔 곳간은 올해 총 42회 밥차를 운영해 1만 7950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내년 1월 3일부터 읍면동 신년 대화 시작

군산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내년 1월 3일부터 옥산면을 시작으로 12일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7개 읍면동에서 개최되는 신년대화는 기존 형식을 탈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군산의 도약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첫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및 분야별로 청취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시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산발전을 위한 시정 발전에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업부서 사전 현장 점검 및 답변하고, 건의사항은 연내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여 설명하고, 처리 후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2024년 신년대화 시작과 더불어 시장이 찾아가는 '시장과의 톡&톡'과 읍면동장 공감대화를 연중 실시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해, 오늘보다 더 나은 군산 발전의 미래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내년 군산사랑상품권 1월 2일 판매 개시

군산시는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은 오전 8시) 4개 금융기관(농협 · 전북은행 · 새마을금고 · 신협) 74개 지점에서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군산사랑상품권은 3,000억원(종이400억원. 모바일 · 카드 2,6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추후 정부예산이 지원되면 발행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할인율은 종전과 같이 10% 할인 판매로 유지하지만, 월 구매한도는 올해보다 감소 된 월 40만원(통합 한도)이다. 이중 종이상품권은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 카드는 통합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희망찬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보건복지부 자활 역량 우수 지자체 선정

익산시가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 등을 통한 취 · 창업과 자활 역량을 높이는 등 우수한 정책 성과를 이룬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익산지역자활센터 및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유기농산물 생산, 두부 제조, 집수리, 스팀세차 등 33개의 사업단을 운영해 매월 500여명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립과 경제적 지원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익산=이재춘 기자